

내년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국내 사진 2점 수록된다

- 세계기상기구 2024년 달력 사진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위력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작품들 선정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세계기상기구(WMO) 2024년 달력 사진 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의 흔적(Trace of Typhoon/ 조은옥 작(作))’과 ‘케이-버스(K-Bus)(윤성진 작(作))’가 각각 4월과 11월 사진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해 달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올해는 ‘기후행동의 전선에서(At the forefront of Climate Action)’를 주제로 최종 14점(표지 2점, 월별 각 1점)을 선정했다.

4월과 11월 사진으로 선정된 ‘태풍의 흔적’과 ‘케이-버스(K-Bus)’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사진으로 잘 담아내어 올해 주제와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세계기상기구 2024년 달력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인류가 힘을 모아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라며, “세계기상기구 달력 사진전에는 기상청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출품작 중 그해의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응모하는 만큼, 내년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세계기상기구(WMO) 2024년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선정 국내 작품
2. 세계기상기구(WMO) 2024년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선정작(14점)
3. 세계기상기구(WMO)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우리나라 작품 선정 이력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마승완 (042-481-7320)
		담당자	사무관	박익태 (042-481-7323)
<공동>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김희철 (02-2181-0352)
		담당자	사무관	오철규 (02-2181-0355)



4월 사진으로 선정된 ‘태풍의 흔적(조은옥 作, 촬영일시: 2022.09.06.10:49, 경상북도 경주시)’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덮친 다음 날 아침, 마을 앞 바다로 난 해파랑길 아스팔트가 종이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난 파도는 하늘을 찌르듯 높게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11월 사진으로 선정된 ‘K-Bus(윤성진 作, 촬영일시: 2022.08.08.22:09, 경기도 광명시)’

지난해 여름 장마철에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그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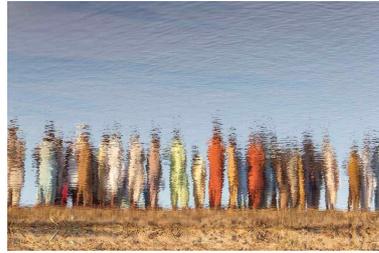
대한민국(11월)



방글라데시(표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표지)



파키스탄(1월)



에티오피아(2월)



크로아티아(3월)



아프가니스탄(5월)



미국(6월)



방글라데시(7월)



인도(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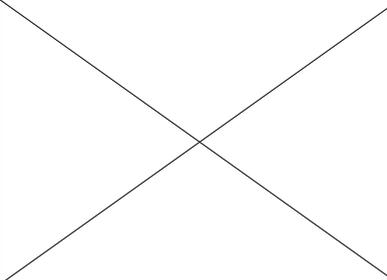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9월)



영국(10월)



칠레(12월)



붙임3

세계기상기구(WMO)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우리나라 작품 선정 이력

연도	사진	작품명(작가명)	비고
2020		돌탑과 햇무리 (신규호 作)	표지
		흑한의 아침을 열다 (오권열 作)	2월
2021		대청호의 고드름 (윤석헌 作)	3월
2022		안개도시 (방춘성 作)	10월

연도	사진	작품명(작가명)	비고
2023		<p>격랑의 바다 (박흥순 作)</p>	10월